

## 교육과 후유증

나 운 영

교각살우(矯角殺牛)란 말이 있다. 「쇠뿔을 제멋대로 바로 잡으려다가는 도리어 소를 죽이기 쉽다.」는 뜻이다.

지구상에서 대학이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아동 수가 가장 많은 초등학교를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라고 한다. 그렇다면 적어도 무엇에나 세계 제일을 좋아한다는 미국도 이점에 있어서만은 우리보다 못한 것이 분명하니 어찌 우리의 큰 자랑거리가 아닐 수 있을쏜가?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을 냉정하게 살펴볼 때 「우리나라의 교육이 과연 올바른 교육일까?」 하는 의심마저 생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왜냐하면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는 거의 국어, 영어, 수학 등 입시 위주로 가르치는 까닭에 음악, 미술 등을 포함한 모든 정규과목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교육(敎育(바로잡을 교, 기를 육))이 아니고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절대다수의 학생들이 소위 <영수학원>과 별로 다른없는 중·고등학교를 다니게 마련이니 예술을 모르는 기형적인 인간밖에는 될 수 없지 않은가?

그 나라의 음악을 들으면 그 나라의 교육을 알 수 있다고 한다. 요즘 유행되고 있는 경박한 노래, 퇴폐적인 노래, 관능적인 노래만을 즐기는 이상(異常)뿔을 만들어낸 그 책임을 과연 누가 져야 할 것인가? 실로 교육자(敎育者) 아닌 교육자(敎育者)의 사명은 크다. 이처럼 학교에서는 별로 음악을 가르치지도 않는 데다가 설상가상으로 레코드 업자들은 유행가를 마구 찍어내고, 방송국은 열성적으로 이런 노래를 퍼뜨리고, 주간잡지는 너무나도 섹시한 사진과 기사를 특별취급하고 있으니 윤락위원회(?)라면 또 모르되 우리나라의 각종 윤리위원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는 설사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쳤다 해도 사회가 망쳐 버리고 마는 경우가 허다하니 한심하기만 하도다.

살인, 강도질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잘못 가르치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못 배운 것」보다 「잘못 배우는 것」이 더 불행한 일이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고르게 — 그리고 바르게 가르쳐야겠다. 흉악범이나 정신병자들 중에는 예술을 이해 못 하는 자가 너무도 많다고 한다. 그러므로 음악, 미술 등을 가르침으로써 예술을 사랑할 줄 아는 정상인을 만들어 내야겠다.

요즘 예배 때에 비트리듬이나 재즈풍의 성가(聖歌)를 부르는 것이 가장 진보적인 교회의 모습인 양 일부에서 떠들어 대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도 과거에 학교에서 음악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데서 오는 — 그야말로 교육(敎育)의 후유증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두말할 것 없이 교회음악과 사회음악은 달라야 한다. 비트리듬이나 재즈조를 경건한 교회당까지 굳이 끌어들이는 것은 교회에 대한 모독이요, 교회음악에 대한 모독이요, 또한 교인에 대한 모독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교회에서 교회음악을 구해내야 될 때가 왔다. 이런 음악(淫樂)이 교회 안에서 불리어질 때 교회와, 교회음악과, 교인은 타락하고 말 것이 분명하다. 교회음악의 현대화와 세속화는 다르다. 하물며 타락화에 있어서라?

<1970. 9. 28. 연세춘추>

### [부록] 자연스런 화장

우리는 거리에서 좀 부자연스런 화장을 하고 다니는 여인들을 흔히 보게 된다. 나는 그같은 모습을 볼 때마다 이상한 느낌이 든다. 「왜 저 아가씨들은 저렇게 부자연스러운 화장을 하고 다녀야

만 하는가? 차라리 화장을 안 하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화장을 하는 것은 여성의 본능이다. 그러므로 나는 화장하는 그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는다. 다만 화장을 잘 할 줄 아는 여성이 되어 주기를 바라고 때문에 하는 말이다.

자기 피부색에 잘 맞는 화장, 자기 입술의 크기와 색깔에 잘 어울리는 화장을 해주었으면 얼마나 좋으랴? 마치 대낮부터 술 취한 사람처럼 벌건 연지를 칠하고 다니는 사람, 지나치게 긴 속눈썹을 달고 다니는 사람, 핏기가 없어 보이는 은빛 매니큐어, 낮에 보아도 무서운 짙은 아이섀도 등등….

그야말로 무대에서 공연을 하다가 거리로 뛰쳐나온 듯한 느낌을 주는 화장은 제발 그만두어주었으면… 여인이 모두 화장을 했다고 반드시 예뻐 보이는 것만은 아니다. 할 줄 모르는 화장은 마치 원시인을 대하는 것만 같다고나 할까? 화장은 옷차림과 마찬가지로 연령, 신분, 교양, 취미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은 물론이고 더욱이 때와 장소를 가릴 줄도 알아야 한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는 성경 말씀대로 얼핏 봤을 때 화장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를 정도로 — 남의 눈에 거슬리지 않게 했을 때 그 사람의 교양미가 은연중에 풍기는 법이다.

몸과 마음이 건전한 그런 여인의 모습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화장이야말로 누구나가 바라는 것이 아니겠는가….

(1975. 1. 월간 주단학)